



“일본군에 유린 당한 여인의 삶 전 세계 알리고 싶었죠”

위안부 다룬 희곡 ‘특급호텔’ 극작가 美 라본느 몰러... 전남대학교서 특강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의 실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사자료가 아니라 ‘안네 프랑크의 일기’였습니다. ‘특급호텔’(Hotel Splendid)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여했으면 합니다.”

희곡 ‘특급호텔’을 쓴 미국 극작가 라본느 몰러(Lavonne Mueller)씨가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에 ‘How Dramatists Use History: Fact and Fantasy’ (극작가들의 역사적 역할: 사실과 환상)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안네의 일기”가 유대인 대학살의 참상을 알렸듯 몰러 씨도 ‘특급호텔’을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 작품은 2008 서울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특급호텔’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막사의 실제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녀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위안부의 아픔 감추기 보다 반성·개선 통해 치유 불행의 역사 되풀이 안됐으면”

문제가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됐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면서 “전쟁에서 희생된 한국 여성의 고통을 통해 반전(Anti-war)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녀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부키를 배우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그녀는 길거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목격하게 됐다.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된 뒤 수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위안부의 친척을 비롯해 20여 명의 한국인을 만나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픔을 직접 들었다. 그녀에게 이 기간은 길고도 힘든 시간이

었다. 자신이 ‘철창’(특급호텔)에 갇혀 매일 20~30여 명의 일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장면 하나하나를 써 내려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베트남 전쟁과 아르헨티나 실종자 문제 등을 소재로 희곡을 집필했을 때는 1년이면 되고까지 마쳤는데, ‘특급호텔’은 2년 넘게 걸렸다”며 “나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인 위안부의 슬픔이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털어놓았다. 또 그녀는 “과거를 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철학자 산타야나의 말을 인용하며, “인류의 슬픔은 묻어둔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반성과 개선을 통해 함께 치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본느 몰러씨는 ‘폭력적인 평화’ ‘작은 승리의 희곡’ 작품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비평가상, 로저 스티븐스 희곡상 등을 수상했다. 또 그녀의 저서 ‘창작 글쓰기’(Creative Writing)는 미국 영국의 일부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도전! ~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

음악가에게 유명 작곡가의 작품을 모두 연주하는 ‘전곡(全曲)’ 연주회는 버거운 도전인 동시에 영원한 로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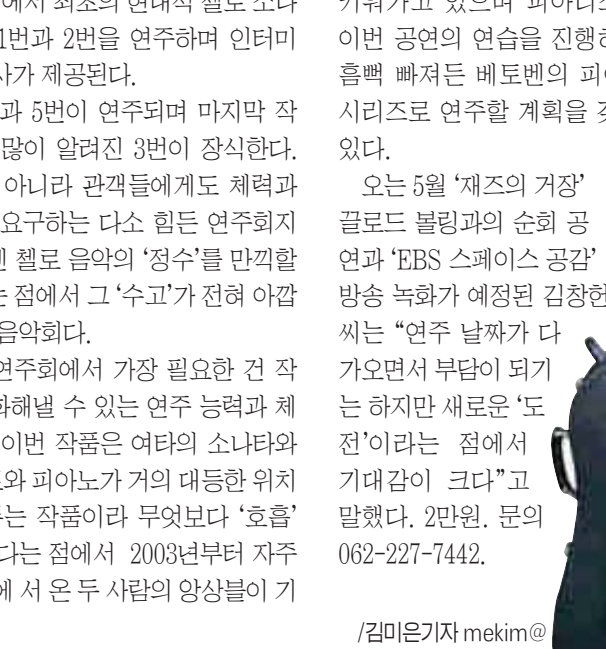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김정아·첼리스트 김창현 듀오
내달 2일 광주문예회관에서 3시간 30분 콘서트

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독일 브레멘, 뤼베크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뤼베크 챔버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중이다. 김창현씨는 이화여대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출신으로 현재 광주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아(44), 첼리스트 김창현(33)씨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6곡) 연주회를 갖는다. 전곡 연주회는 이틀로 나눠 열기로 하지만 두 사람은 오는 5월 2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두차례 인터미션 포함·광주문예회관 소극장)까지 하루에 연주회를 마친다.

첫번째 타임에서 최초의 현대적 첼로 소나타로 꼽히는 1번과 2번을 연주하며 인터미션 때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도전은 또 다른 도전과 꿈을 낳는다. 첼리스트 김 씨는 마흔살이 되는 해 교회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김 씨는 이번 공연의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흠뻑 빠져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시리트로 연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정아(44)씨와 김창현(33)씨. 김창현씨는 이화여대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출신으로 현재 광주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도전은 또 다른 도전과 꿈을 낳는다. 첼리스트 김 씨는 마흔살이 되는 해 교회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김 씨는 이번 공연의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흠뻑 빠져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시리트로 연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스 5월 ‘재즈의 거장’ 클로드 볼링과의 순회 공연과 ‘EBS 스페이스 공감’ 방송 녹화가 예정된 김창현 씨는 “연주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2만원.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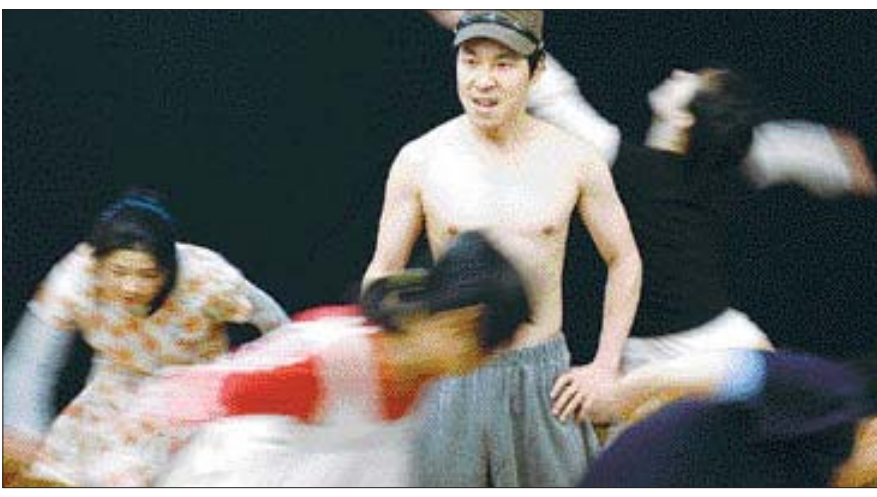
연극 ‘특급호텔’은?

‘특급호텔’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11세에서 25세에 이르는 네 명의 위안부 여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에 유린당하고 성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섬뜩한 체험을 이야기 한다.

연극은 비극적인 현실을 일성적인 언어로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시적인 언어로 절제해 표현했으며 참혹한 장면은 이미지로 시각화했다. 또 일본군을 ‘원수’로 만드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일본 군인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폭력성을 고발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번 연극을 공연하는 극단 초인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임에도 한국에서 한국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작품이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부 막사 실제 이룬 군인들 잔혹한 행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고발



리허설 공연을 지켜본 라본느 몰러씨는 “연출자가 내 작품에 숨결을 불어넣어 줬다”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을 전해주기 충분했다”며 상사했다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일본에서도 이 연극이 공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만~4만원. 문의 02-929-6417.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직접 만들어 보세요

광주 디자인센터 참가자 모집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는 오는 26일~5월18일까지 디자인체험관 ‘디키빌’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인형이나 소품을 조립식 움직임이 더해 촬영된 화면으로 동영상 만드는 기법이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4인 1조로 나눠 동물 주인공의 생김새·특징 등을 이해하고, 스케치, 모형인형 제작, 디지털 카메라 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동영상물을 만들게 된다. 작품이 완성되면 가족들과 함께 상영회를 갖고, CD로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준다. 25명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다. 문의 062-611-51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나리자의 미소 비밀 밝혔다

미소의 핵심 눈·입 그림자 2개 그림물감층 통해 창작

모나리자의 미소에 핵심적인 눈과 입 주변의 그림자들은 작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2개의 그림물감층(層)을 통해 창작한 것으로 최신 연구결과 드러났다.

다 빈치는 깊이, 부피,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투명 그림물감층을 겹치게하는 ‘스푸마토’ 기법

을 이용해 처음에는 망간이 함유된 그림물감을 칠한데 이어 주황색 안료와 납이 함유된 두번째 층을 칠했다고 ‘응용 광학’ 잡지 최신호가 22일 보도했다.

이 기법은 당시 이탈리아 화가들이 널리 이용했다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매디 엘리아스 박사가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각 층에 대한 분석은 그림 위의 많은 지점들에서 1억 분

광(分光)까지 측정할 수 있는 다(多)스펙트럼 감응성(感應性) 카메라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대기 및 해양 과학에만 적용되던 이 기술을 연구해온 엘리아스 박사는 “이 연구는 물질 내 빛의 유량(流量) 계산이 미술에 적용된 첫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모나리자는 현재 파리 루브르미술관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movies 인기영화 중거울 거울 보너스

Happy Time

영화안내

| 메가박스 | 엔터시네마 | 콜롬버스시네마 | 씨너스전대 | 하미시네마 | 무등극장 | 제일시네마 |
|--|--|---|---|--|---|---|
| <p>구.린단국사거리 ☎1544-0600</p> <p>1관 포비든 킹덤 (12세) 최고급관</p> <p>2관 포비든 킹덤 (12세)</p> <p>3관 킵 워드 미 (18세)/ 연의 황후 (15세)</p> <p>4관 삼국지-웅의부활 (15세)</p> <p>5관 테이큰 (18세)</p> <p>6관 패솔로지 (18세)</p> <p>7관 포비든 킹덤 (12세)</p> <p>8관 나의특별한사랑이야기 (15세)</p> <p>9관 스트리트 킹 (18세)</p> | <p>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GP506 (18세)</p> <p>2관 나의특별한사랑이야기 (15세)</p> <p>3관 그레이시스토리 (12세)</p> <p>4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p> <p>5관 에이징그래스(전세)/10,000BC (15세)</p> <p>6관 킵 워드 미 (18세)</p> <p>7관 추격자 (18세)</p> <p>8관 천일의 스캔들 (15세)</p> |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변)</p> <p>1관 삼국지 (15세)</p> <p>2관 GP506 (15세)</p> <p>3관 포비든 킹덤 (12세)</p> <p>4관 킵 워드 미 (18세)</p> <p>5관 연의 황후 (15세)</p> <p>6관 연의 황후 (15세)</p> <p>7관 스트리트 킹/테이큰 (18세)</p> <p>8관 버킷리스트(12세)/패솔로지(18세)</p> <p>9관 스트리트 킹 (18세)</p> <p>10관 테이큰 (18세)</p> | <p>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p> <p>1관 삼국지 (18세)</p> <p>2관 킵 워드 미 (18세)</p> <p>3관 스트리트 킹 (18세)</p> <p>4관 GP506 (18세)/패솔로지(15세)</p> <p>5관 별이이야기(전세)/천일의스캔들(15세)</p> <p>6관 포비든 킹덤 (12세)</p> <p>7관 테이큰 (18세)</p> | <p>진대후문 하미포팩스 ☎267-7777</p> <p>1관 속명 (18세)</p> <p>2관 10,000BC (15세)</p> <p>3관 어웨이크 (15세)</p> <p>4관 천일의 스캔들 (15세)</p> <p>5관 연의 황후 (15세)</p> <p>6관 GP506 (18세)</p> <p>7관 테이큰 (18세)</p> <p>8관 스트리트 킹 (18세)</p> <p>9관 포비든 킹덤 (12세)</p> <p>10관 삼국지-웅의부활 (15세)</p> | <p>충장로 1가 ☎232-9106</p> <p>1관 천일의 스캔들 (15세)</p> <p>2관 연의 황후 (15세)</p> <p>3관 스트리트 킹 (18세)</p> <p>4관 삼국지-웅의부활 (15세)</p> <p>5관 GP506 (18세)</p> <p>6관 테이큰 (18세)</p> <p>7관 추격자 (18세)</p> <p>8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p> <p>9관 킵 워드 미 (18세)</p> | <p>충장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p> <p>1관 포비든 킹덤 (12세)</p> <p>2관 GP506 (15세)</p> <p>3관 킵 워드 미 (18세)</p> <p>4관 테이큰 (18세)</p> <p>5관 스트리트 킹 (18세)</p> <p>6관 추격자(18세)/ 삼국지 (15세)</p> |